

GE, '2013 코리아 EPC 서밋' 개최

- 글로벌 에너지 시장 동향 공유 및 해외 디벨로퍼와 교류의 장 마련
- 국내 EPC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 기회 확대 지원

2013년 11월 20일, 서울 - GE코리아는 어제 19일 국내 EPC(설계·구매·시공)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3 코리아 EPC 서밋(2013 Korea EPC Summi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Grow with Global Developers"라는 주제 하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디벨로퍼와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EPC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빅터 아베이트(Victor R. Abate) GE 파워&워터 신규 발전사업 부문 사장은 "한국 EPC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로, GE의 중요한 고객이자 글로벌 EPC마켓 발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파트너다"라며, "한국 EPC기업들이 갖춘 경쟁력과 GE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해 더 많은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는 국내 EPC기업 임직원, 글로벌 디벨로퍼, 국내외 GE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GE는 지난 2008년부터 중동,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EPC서밋을 개최해 왔다. 한국에서는 한국 EPC기업들의 글로벌 위상과 성장세를 주목해 지난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이번 서밋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지역별로 특화된 해외시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국 EPC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 EPC기업의 주요 고객인 해외 프로젝트 디벨로퍼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GE는 세계적인 전력발전 및 에너지 공급 기술기업으로, 가스터빈, 스팀터빈 등과 같은 발전 주기를 공급하고, 기기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GE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전문성, 기술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EPC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수주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 EPC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Korea EPC팀을 강화하고, 더욱 현지화된 서비스와 고효율 가스터빈을 제공하는 등 EPC기업의 글로벌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운식 GE 파워&워터 코리아 사장은 "GE는 국내 EPC기업의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GE의 글로벌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활용해 EPC기업들의 해외시장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PC서밋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동향과 기회, 글로벌 디벨로퍼가 선호하는 EPC 요건 및 사업 접근 방식, 전세계 지역별 성장 기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다루었으며, 발전분야 및 에너지 관리에 있어 GE가 보유한 최신 기술 및 솔루션을 소개했다.

GE파워엔워터에 대하여

발전과 에너지 공급 및 수처리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기술을 제공하며 고객의 도전과제를 현지에서 해결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와 대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원자력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수자원 이용과 수질에 관련된 세계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 미국 뉴욕주의 스키넥터디에 본사가 있으며 GE의 산업 부문 사업 중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부다.

GE에 대하여

GE는 중요한 일을 구현합니다. 최고의 인재와 기술로 최대 난제를 해결합니다. 에너지, 의료, 가정, 수송과 금융에서 솔루션을 찾아 냅니다. 세계를 짓고 건설합니다. 세상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이동시키며 치료합니다. 상상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GE가 실현합니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www.ge.com)

한국에서는 1976년 공식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협력하며 장기적인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1,400여명의 직원들이 항공, 발전, 수처리,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가전과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ge.com/kr) 참조

문의

GE코리아: 김수연 차장 (T:02-6201-4023)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이수경/박도윤/조현지(T:6323-5074, 5053)